

아는 책임

To Know is To Be Responsible

요한복음 15:13-1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9월 2일 설교

¹³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¹⁴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¹⁵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궁금한 앞날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마술램프를 발견했습니다. 마술램프는 늘 이렇게 바닷가 모래에 묻혀 있는데 그리니치 바닷가에서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마술램프니까 동화에서 읽은 대로 일단 문질렀습니다. 그 다음은 아시지요? “핑!” 소리와 함께 거인이 나타나서는 저를 램프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깐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해 뒤의 신문을 보고 싶다 했습니다. 거인은 금방 신문을 갖고 와 건네주었습니다. 조선일보인지 경향신문인지 살필 겨를도 없이 열른 폈습니다. 뭘 보려고요? 예, 경제면을 펴서 주식 시세부터 보았습니다. 한 해 뒤 값이 많이 오른 주식을 지금 잔뜩 사 놓으면 내년에는 큰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랄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문을 뒤적이는데 주식란 바로 앞 사회면에 보니 부고란이 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하나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지어낸 이야기지요. 요즘 세상에서는 정보가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이십일 세기 세상은 모든 게 돈 아닙니까? 정말 돈 세상입니다. 남이 모르는 정보를 나만 갖고 있다, 특히 남이 모르는 주식 정보 같은 걸 내가 알고 있다, 이걸 엄청난 겁니다. 그거 잘못 돌리면 감옥에도 가고 그러지요. 꼭 이렇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도 사람은 앞날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경제가 언제쯤 살아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올해 프로야구는 어느 팀이 우승할 건지도 궁금하고, 내 아이가 커서 뭐가 될 건지 그것도 궁금하지요.

저도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참 많습디다만 그것보다는 앞날이 왜 이렇게 궁금할까, 그게 더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 본 답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 놓으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 7:14). 사람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예측만 할 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운명론

앞날을 알고 싶은 마음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른 바 운명론이라는 겁니다. 앞날의 일이 다 정해져 있다는 믿음이지요. 노래에도 있지요? 케세라세라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정해져 있으니까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웃기는 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앞날의 일을 내가 미리 알기만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지요. 정해져 있다면 내가 미리 안다고 바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유동적이고 고정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정해진 앞날이 있다고도 믿고 또 그걸 미리 알면 바꿀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족집게 점쟁이라는 사람들 있지요? 점을 보러 가서는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어쩜 그렇게 잘 알까? 말해 주지도 않은 내 과거를 훤히 꿰고 있더라 하면서 그런 용한 점쟁이가 주식은 하지 말라 했으니 그 말을 꼭 명심해야지 합니다. 앞날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방법까지 알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가 그 점쟁이한테 그렇게 미래를 잘 보시면 주식을 해 돈이라도 벌지 그러냐 했더니 그 점쟁이 말이 자기는 평생 점을 보면서 살 팔자라 돈은 못 번다 하더라고요. 운명론이지요. 그걸 바꾸는 방법은 못 알아낸 모양입니다. 손님 것은 바꿀 수 있고 제 것은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족집게 점쟁이입니다. 사이비 운명론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오래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도 있지요 아마?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것 보면 안 됩니다. 재미로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운세라는 건 운명론입니다. 앞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을 믿지만 예정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예정하고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건 다음에 따로 살피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고 또 마귀가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

런 건 아예 멀리 해야 됩니다. 장난으로도 재미로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유머인데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신 믿지 마세요. 재수 옴 붙어요.” Do not believe in superstition - it brings bad luck. 이게 왜 유머입니까? 미신을 믿지 마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이미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지 말라는 가르침이 미신에서 나온 것이니 유머가 되지요. 이런 우스개가 또 있습니다. “성격이 혈액형을 따라간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은 아마 다 에이 형일 거야.” 좀 고상한 것도 있지요. 어떤 대학생이 자기 방에 부적을 붙여 놓았습니다. 친구가 그걸 보고는 “자네 배웠다는 사람이 이런 거 믿나?” 그랬더니 그 친구 왈. “물론 안 믿지. 하지만 안 믿어도 효력은 있대.” 이것도 유머지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한 미래

처음 말씀드린 마술램프 이야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앞날의 일에는 잘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확실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그건 잘 몰라도 적어도 내가 죽는다는 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걸 운명론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과거나 현재를 아는 것처럼 확실히 알고 있는 미래입니다.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일은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확실하지 않은 일은 더 알아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너도 나도 다 죽습니다. 이걸 잘 알면서 준비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점쟁이나 찾아다닙니다. 어리석지요.

앞날의 일을 모른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모른다는 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나 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앞날은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예정해 놓으신 걸 내가 이룹니다.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건 말이 틀렸습니다. 정해진 게 있어야 바꾸기도 하지요. 미래는 그냥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 운명론하고 다른 점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 그걸 하나님이 어느 걸 좋아하실지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확실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한 것 가운데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처럼 경험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고 그런 다음 늙고 나중에는 죽는다는 이걸 누구나 다 압니다.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혹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깨우치고 권해 슬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겁니다.

나만 안다면?

오늘 생각할 건, 그럼 제한된 지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모두 모르는 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제 것으로 만들어 가고, 모두 아는 건 그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일부만 알고 있는 사실, 나를 포함해서 제한된 사람만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나 전혀 모르는 거나 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남은 갖지 못한 특별한 책임을 안겨줍니다. 아는 건 곧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 18장). 나그네를 잘 대접한 아브라함이 이 때도 손님들 앞에 엎드려 집으로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접을 잘 받으시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예정 가운데 이렇게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아브라함도 이들을 배웅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걸 소돔 성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위치가 반대입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옮겨 적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누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섬긴다, 그 사람의 종이다, 하는 뜻입니다 (신 10:8; 17:12, 창 19:27; 왕상 17:1; 눅 1:19).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셨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둘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위치를 바꾸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렇

게 고치고는 우리가 좀 고쳤소 하고 밑에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고친 건 좋은데 그렇게 고치다 보니 중요한 한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뭐겠습니까? 두 천사는 길을 떠났는데 여호와께서는 안 가셨다,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셨다, 하는 뜻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구 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제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원뿐 아니라 그 구원에 들지 못한 사람이 받게 될 심판까지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소돔을 벌주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롯을 구해 주신 것도 아브라함을 생각해 하신 일이라 했습니다 (창 19:29).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거기 있는 우리 조카는 살려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성을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냥 살려 달라고는 안 했지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의인이 오십 명 있다면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소돔 성 전체를 살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판에는 소돔 성 전체를 살리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 쉰 명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그러자 하십니다. 너무 쉽게 허락하시니까 용기가 나서 다섯 명을 깎아보고, 또 그래 하시니까, 다섯을 더 깎고, 그 뒤로는 열 명씩 세 번을 더 깎아서 결국 의인이 열 명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봐서 소돔 성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폭이 참 크지 않습니까? 전에 재산 때문에 조카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크게 양보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는 구원해 주고, 죄 많은 소돔 성은 멸망시키겠다” 하시니까 (창 18:23; 19:13) 야 나는 구원이구나 하고 좋아하는 대신 죄 가운데 죽어갈 소돔성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그들을 위해 빌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렸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참 끈질기게 깎고 또 깎아 결국 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별명 가운데 “믿음의 조상” 말고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지요? 예, “하나님의 벗”입니다 (대하 20:7; 사 41:8; 약 2:23).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친구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됩니까? 친구는 남들은 가지지 못한 비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한테도 말 못 하는 걸 친구한테는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실 하나님, 그 메시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만 나눈다고 친구가 됩니까? 친구는 마음이 통합입니다. 사람의 중심, 가장 깊은 곳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통해야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오해라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친구가 된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심한 죄를 지을 때는 심판하고 멸망도 시키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겔 18:23; 33:1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십니다 (딤후 2:4; 벰후 3:9). 하나님은 또 의의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 3:2; 렘애 3:22).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에서 친구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지금까지 종으로 대해오던 제자들을 친구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조금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주인인 내가 본을 보였으니 종 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요 13:14).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주님하고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미 친구라 부르셨다는 말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주님 말씀을 간직한 제자들, 이제 친구가 된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해 죽으실 것인데 그 친구는 곧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요 또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요 15:6-7).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원의 말씀이지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제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것이요, 그 구원에 들지 못한 소돔 성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서 똑같은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어 행하는 사람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불어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 밖에 있는 사람, 곧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아는 책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보면 주님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성경으로 기록하여 그 비밀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비밀입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 15:17). 알았으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입니다.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주 예수를 믿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안 사람의 첫째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와 의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걸 얻었는데, 써먹지를 못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이 정보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일도 아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니라, 제한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진 것은 특권지식을 갖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른 전해 그들도 구원에 들게 도우라는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을 위해 빌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위해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먼저 받은 것은 빛을 진 것과 같습니다 (롬 1:14; 고전 9:16). 갚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제 나랑 친구 하자 하고 말씀하신 이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기록으로도 남겨 자기 책임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책임입니다. 이걸 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식인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안 사람의 책임이 그만큼 더 큼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날의 일에 엉뚱한 관심을 가지면 점쟁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바닷가로 가서 마술램프를 찾아 해매겠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요즘 신사도운동인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통계시라는 게 바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앞날의 일을 마치 정해진 것처럼 안다는 것인데, 그건 운명론에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큐티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부 목록까지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고 좋은 안테나 붙이고 좋은 배터리 넣어 주시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책임지는 자유인으로 만드셨겠습니까?

돈 좀 더 벌어서 보자고 남모르는 지식 찾아 해매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게 단 줄 안다면 참 안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사람도 그런 잘못된 흐름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있는데, 아직 그 확실한 것도 준비를 다 못 했는데, 엉뚱한 호기심에 빠질 거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확실하게 알려주신 건데 늘 깨어 준비할 생각이 없고 엉뚱하게 언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으니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더불어 사람 된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실이고, 그리고 한 번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려 주셨는데, 그 귀한 정보, 내 목숨, 내 이웃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 일에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꿈이나 꾸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바로 그 종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건 책임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미래라면 나도 아니까 내 책임이고, 아무도 모르는 미래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 개척해야 되니까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정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 시시한 정보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의 책임을 다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